

虎 叱 再 論

—그 背景의 寓意性과 作中人物의 性格을 中心으로—

權 泰 乙

<차 례>

- | | |
|-------------|---------------------------------------|
| 一. 序 論 | 3. 背景의 寓意性과 作中人物의 性格 |
| 二. 本 論 | 1) 叙述構成 2) 背景과 作中人物과의 관계도 3) 分析 |
| 1. 虎叱製作 目的 | |
| 2. 燕岩의 創作理論 | 三. 結 論—主題把握을 檢해서— |

一. 序 論

한 작품을 놓고 「虎叱」에 대한 연구나 논의만큼 활발했던 경우도 그리 흔하지 않다.¹⁾ 대체로 지금까지의 연구나 논의는 原作의 문제, 作中人物과 主題, 諷刺性 등에 主眼하여 考究된 것이 많고 背景을 중심으로 考究된 것은 극히 적다 하겠다.²⁾

더구나 고대 소설(특히 이조시대 소설) 연구에서는 대체로 그 구성의 3요소라 일컬어지는 人物·事件·背景 중에서도 ‘누가’, ‘무엇을’에 관심을 쏟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의 고대 소설 배경이 “인물·사건의 보조로서나 主題的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필요에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장소 혹은 지명·계절을 示唆하기 위한 의도에서 표현³⁾된 것에 불과했던 까닭에서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물과 사건이 살아서 움직이는 공간적 영역이요 무대로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발전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1)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에서 <大文豪朴趾源과 그의 作品>을 언급한 이래 李家源의 “虎叱研究”, 「燕岩小說研究」, 李佑成의 “虎叱의 作者와 主題”, 李源周의 “虎叱의 諷刺對象”, 蘇在英의 “虎叱再論”, 李在秀의 “燕岩小說考”, 黃滄江의 “虎叱研究” 등이 있고 필자도 「김천 간전논문집」(제 6집)에 “虎叱의 作中人物과 主題에 關한 一考”를 발표한 바 있다.

2) 黃滄江, “虎叱研究”,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서울, 一潮閣, 1978), pp. 209~228에서 작품 구성의 분석 중 배경의 상징성에 대한 언급 있음.

3)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서울, 宣明文化社, 1975), p. 48.

요인으로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심지어는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내포까지 하는 배경⁴⁾이 있다면 그 배경을 소홀히 다룰 순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고대소설 그 어느 작품에서보다, 燕岩의 그 어느 작품에서보다도 「虎叱」의 背景은 主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감안하여 그 背景 위에 놓인 作中人物의 性格과 關係지어 본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고구해 봄직도 하였다.

이에, 작품 연구의 관건은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작품 자체의 분석은 물론 먼저 작자의 저작 목적—연암의 다른 작품도 대체로 그 저작 목적을 밝혔으나—에 서삼 눈을 돌리고, 또한 작자의 創作理論이 이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등을 연관지어 주제 파악에까지 이르코자 한다.

사용한 텍스트는 景仁文化社刊의 「燕岩集」(全)이며 譯文은 李家源譯의 「燕岩·文無子小說精選」 및 국역 「열하일기」(1)와 李佑成·林燮澤譯의 「李朝漢文類篇集」(下)를 참조했음을 밝혀 둔다.

二. 本 論

1. 虎叱製作 目的

윗것을 알기 위해서도 작자가 직접 밝혀 둔 熱河日記 關內程史(正祖 4年·1780. 7. 28)에 나타난 제작의 경위와 虎叱後識을 참고로 함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먼저 제작의 경위는, 燕京으로 가던 중 玉田縣의 沈有朋 집에서 絶世의 奇文을 발견하여(壁上懸一篇奇文 驚紙細書 爲格子 塗之橫堯一壁 筆又精工 就壁一讀 可謂絶世奇文)⁵⁾ 베껴가 本國人에게 〈웃음의 資〉로 삼고자 하였다(余曰 歸令國人讀 當捧腹軒渠 唱嘯絶倒 噴飯如飛蜂 絕纒如拉朽) 그러나, 이 絶世의 奇文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 아니라 鄭進士가 베낀 뒷 부분은 전혀 뜻이 안 통할 정도로 誤書·落字句가 많아 작자는 뜻이 통하게 고치고 보충하였다.(及還寓点燃閱視 鄭之所勝無數誤書 漏落字句 全不成文理故 略以己意点綴爲篇焉)⁶⁾

4) 丘仁煥·丘昌煥, 「文學概論」, (서울, 三英社, 1976), p. 203 참조.

5) 앞으로 원문의 출처 표기지는 약하기로 한다. 원문 표기는 뒷말의 보충을 위해서다.

6) 原作者 지미는 본 연구에서 논의되 하지만 拙稿 “虎叱의 作中人物과 主題에 관한 一考”에서 필자는 이 奇文을 「虎叱」의 소재였다고 본 바가 있음을 첨기해 둔다.

또한, 「虎叱」後識에 나타난 글씨는,
첫째, 「虎叱」은 중국의 어느 작자가 悲憤을 금치 못하여 글르 지은 것이
다.

둘째, 만사를 天地의 氣數로만 돌리려는 위정자의 편협성이 있다.

셋째, 愚民이 반기하면 强者(위정자)도 지망하기 어렵다.

네째, 지 받처럼 혼란에 빠지기만 하는 中原의 맑아질 날을 기대하며 「虎叱」(처음은 제목이 없는 것임)이라 標題를 붙여 이 판권을 제작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中原의 혼탁한 社會에 悲憤을 금치 못한 어느 華人の 絶世奇文을 本國人에게도 읽히고 싶은 강렬한 衝動에 자자의 뜻(意)으로 題目을 달고 내용도 자의로 고치고 보충하여 한 권의 소설을 만들었다. 강렬한 충동의 목적은, 改善이 가능한 爲政의 矛盾까지도 짐짓 天地의 氣數로만 돌리어 점점 사회의 혼란만을 조려하는 狹隘層의 작성을 촉구하는 諷刺의 資로서 「虎叱」은 충분하다고 본 데에 있다 하겠다. 이는 곧, “내가 中年期부터 세상에는 마음이 없고 점점 滑稽로 명예를 도피하려는 뜻을 갖게 되었다. 말세의 풍속이 한없이 무질서하여 함께 말할 사람이 없구나.”⁷⁾ 한 작자의 솔희에 비추어 볼 때 「虎叱」은 단순한 破綻의 笑談거리 이상의, 燕岩自身에게는 對自我的 對話의 窓口로서 그 존재 의의까지 지닌다 하겠다.

2. 燕岩의 創作 理論⁸⁾

연암의 創作 基本態度는 法古보다는 剗新에 있다 하겠다. <法古에서 變革을, 剗新에서 典雅를 잃지 않으려면 될 것을 오늘날의 文章은 드리어 法古에만 치우쳐 있음을 개탄한 바 있다.> (噫 法古者病泥跡 剗新者愚不經 苟能法古而知變 剗新而能典 今之文 猶古之文也)⁹⁾ 그러나, 그는 剗新이라 하여 너무 기교에만 빠지면 法古에서 범하는 累만도 못함¹⁰⁾을 지적하지 않은 바 아니나, <진리가 유구한 역사를 지녔고 일월이 오랜 세월을 겪었지만 날로 새

7) 朴宗采, “나의 아버지 朴燕岩”(上), 「文學思想」(통권 20), (서울, 문학사상사, 1974), p.386.

8) 연암의 창작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서울, 을유문화사, 1978),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서울, 지식산업사, 1978) 및 “朴趾源의 文學思想과 小說論”, 「韓國小說文學의 探究」, (서울, 일조각, 1978), 金永植, “燕岩 朴趾源의 文學觀과 文學理論”, 「明知語文學會」(제 8 호), (서울, 명지대, 1976) 등에서 고구된 바 있어, 필자는 본문의 논의를 위해 그 개요만 살피려 한다.

9) 朴趾源, “楚亭集序”, 「燕岩集」(全), (서울, 景仁文化社, 1974), p.12 (앞으로는 卷1, “楚亭集序”, p.12를 중희를 인용)

10)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pp.118~119 참조.

4 嶺南語文學 (第9輯)

로운 변화를 거듭하여 왔고 이 땅덩이 위에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규명하지도 글로써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려내지도 못한 바 있다(天地雖久 不斷生生 日月雖久 光輝日新 載籍雖博 旨意各殊 故飛潛走躍 或未著名 山川草木 必有秘靈 朽壤蒸芝 腐草化螢 禮有訟 樂有議 書不盡言 圖不盡意)¹¹⁾고 설파하여 저 劉繩의 “변혁은 영원한 길, 전통의 계승은 풍성한 샘”¹²⁾이라는 法古剏新의 調和를 피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剏新에 力點을 두었음을 알 수 있으며 「熱河日記」 저술 이후 斯文亂賊의 標의이 되었던 사실은 周知의 일이다.

또한 연암의 創作心理는 對自我的 對話의 窓口를 마련키 위함이었다고 전술한 바 있거니와 <뜻을 펴지 못하고 억눌린 사람이 글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이룩하고자 했으며 위경자의 횡포와 허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썼다>¹³⁾ 하겠다. 이같은 有目的인 창작 심리는 연암으로 하여금 詩보다는 散文 특히 小說을 택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끝으로 연암의 創作方法을 살펴 보자. 그는 글을 쓰기 위해 평소 예 메모하기¹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글쓰는 방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밝힌 글은 “騷壇赤幟引”¹⁵⁾을 들 수 있겠다. 즉,

글자는 비견대 사졸이요(字譬則士也), 뜻은 장수다(意譬則將也). 제목은 적국이요(題目者 敵國也) 고사를 원용함은 전장에 성루를 둠이다(學故者 戰場墟壘也). 句와 章을 지음은 대오행진이며(東字爲句, 團句成長 猶隊伍行陣也) 韻으로 소리를 내고 수식으로 빛을 내는 것은 금고·정기와 같다(韻似聲之 詞以耀之 猶金鼓旌旗也). 조응은 봉수대요(照應者 燧墩也) 비유란 것은 유격대다(譬喻者 遊騎也). 억양반복은 격전의 시살과 같고(抑揚反復者 鏖戰擄殺也) 파제하고 결속함은 먼저 올라 적을 사로잡음과 같다(破題而結束者 先登而擒敵也). 함축을 귀히 여김은 두 가지(표면과 이면에 담긴 뜻)를 함께 잡지 않음이며(貴含蓄者 不禽二毛也) 여운을 남김은 군사를 거느려 개선함과 같다(有餘音者 振旅而凱旋也).

고, 했다. 이같이 확고한 방법론을 펴 연암은 창작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訟事に 證據를 제시해야 함과 같음을 밝히기도 했다.¹⁶⁾

특히 燕岩은 含蓄을 貴히 여겨, 戲字를 하거나 “글자는 갈아도 글은 독자

11) 卷1, “楚亭集序”, p. 12.

12) 劉繩·崔信浩譯, 「文心雕龍」, (서울, 玄岩社, 1975), p. 216.

13) 趙東一, “朴趾源의 文學思想과 小說論”, p. 198 참조.

14) 朴宗采, 앞의 글, p. 384 참조.

15) 卷1, “騷壇赤幟引” p. 25.

16) 卷5, “答蒼厓”, p. 93 “文章有道 如訟者之有證…雖辭明直 若無他證 何以取勝”

성을 띤다”¹⁷⁾고 한 바도 있으며 「熱河日記」序文에 그 예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易經과 春秋의 文章構造를 논하여 易經은 微妙함을, 春秋는 顯著함을 다룬 것으로 易經에서 寓言이, 春秋에서 外傳이 생길 수 있다 하였다. 이는, 하나의 文章이라도 감취짐(微妙)과 드러남(顯著)이 함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燕岩은 창작에 있어 法古에 뿌리를 내리고도 剏新에의 독자성을 마음껏 발휘했으며 有目的的인 입장에서 散文(특히 小說)을 택해 뚜렷한 創作方法을 지니고 漢文이 지닌 장점(뜻글자로 함축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음)을 살려 글을 쓴 작가라 할 수 있겠다.

3. 背景의 寓意性¹⁸⁾과 作中人物의 性格

本項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敘述構成, 背景과 作中人物과의 關係圖를 살핀 다음 分析에 들어가하고자 한다.

1) 敘述構成

「虎叱」은 戲曲的 요소가 다분한 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서술 구성을 회곡적 구성으로 보아 三場으로 본 경우가 있고¹⁹⁾, 八段으로 본 경우 등이 있다.²⁰⁾ 필자는 전통적인 四段構成으로 살펴볼 하거니와 各段의 내용은 다음 分析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起 : 가) 범의 威風과 異獸²¹⁾들과의 관계 서술

- 가) 범은 응맹하여 대적할 자 없다.
- 나) 狒胃·竹牛·駮·玆白 등은 범을 잡아 먹고
- 니) 五色獅子는 범을 큰 나무 선 산꼭대기서 잡아 먹고
- 리) 鼯犬은 날아 범과 표범을 잡아먹고
- 로) 黃栗는 범과 표범의 엄통을 꺼내 먹고
- 리) 狷은 범과 표범에게 먹히었다가 그 간을 뜯어 먹고
- 사) 猨耳는 범을 만나기만 하면 찢어서 먹고
- 오) 猛獠를 범이 만나면 눈을 감은 채 잡히 뜨지 못한다.

17) 위와 같은 글, 같은 곳, “字所同而文所獨也”

18) 寓意性이란 문장상의 寓喻(Allegory)나 文字上的 寓言의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9) 李源周, “虎叱의 諷刺對象”, 「常山 李在秀博士 還曆記念論文集」, (대구, 형실출판사, 1968), p. 435. 와 黃浪江, 앞의 논문. pp. 209~228.

20) 李家源, “虎叱研究”, 「延世論叢」(제 2집), (서울, 延世大, 1963), p. 156.

21) 狒胃에서 猛獠까지 10種의 짐승을 앞으로는 ‘猛獠’으로 통칭한다.

6 嶺南語文學 (第9輯)

ㄱ) 사람은 猛貓을 두려워 얹되 빙을 두려워 한다.

나) 빙이 사람을 먹으면 곧 神靈해짐.

ㄱ) 屈厄²²⁾이 黔首之物을 권함

ㄴ) 舜兀²³⁾이 醫員·巫者를 권함.

ㄷ) 霧深²⁴⁾이 碩德之儒를 권함

承: 다) 北郭先生과 東里子의 密會

ㄱ) 北郭先生과 東里子의 음사

ㄴ) 五子에게 말함

ㄷ) 北郭先生의 도주

轉: 라) 빙의 질책

ㄱ) 야유하는 빙

ㄴ) 아침 나는 北郭先生

ㄷ) 빙의 질책

· 儒者는 諛者다.

· 五常·四綱의 索強附會의 惡用化

· 口腹의 累로 인한 잔악성

· 天理에 逆行

· 同類끼리의 참혹한 殺相

· 붓(儒者)의 횡포

結: 마) 北郭先生의 奇行을 농부가 말함.

ㄱ) 허공에다 대고 절을 하는 北郭先生

ㄴ) 농부가 北郭先生을 말함

ㄷ) 위선으로 감싸는 北郭先生

등으로 나타나 있다.

2) 背景과 作中人物과의 關係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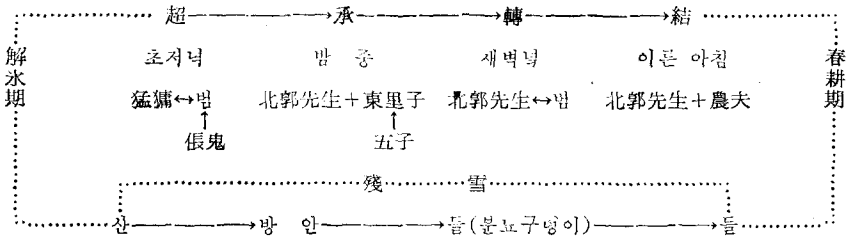
이상의 시술 구성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의 관계를 圖式化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그림에 사용된 時間·空間上의 → 線은 그 경과 및 이동의 표시, 테두리의 세로선인 ……線은 시간과 공간에 같이 해당, 공간 위의 ……線은 공간에만 해당, 인물 상호간에 쓰인 ↔표는 대립 관계, +표는 화합 관계, ↑표는 同居關係를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난 時間·空間 背景의 근거는 미리 밝히는 게 편리하겠다.

22) 벌에게 첫번째 먹힌 사람이 만든 假鬼로 빙의 저드랑에 붙어 살면서 빙을 남의 집 부익으로 이끌어 출진을 하게 하면 주인이 배가 고파져 그 부인을 밭짓게 내어 보냄.

23) 두 번째 먹힌 사람이 만든 假鬼로 빙의 광대배에 붙어살며 위험물을 미리 제거함

24) 세 번째 먹힌 사람이 만든 假鬼로 틈에 붙어살며 자기의 친구를 자꾸 불러냄.



起의 초저녁은, 범이 偃鬼들에게 “오늘도 해가 저무는데”(日之將夕) 먹을 것을 추천해 보라는 테시 알 수 있는 일이며 산은 猛獠과 범의 서식처다.

承의 밤중은,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今夜願聞先生讀書之聲)고 東里子가 北郭先生에게 청하는 말로, 이들의 密會는 밤중이어야 하고 방안은 東里子의 방이다.

轉의 새벽녘은, 東里子와 北郭先生의 密會에서 “강 북편엔 닭 울음 소리”(水北鷄鳴)云云하며 東里子의 五子가 현장을 급습하여 범의 질책을 받다가 동녘이 밝아오기 전까지를 저청하며 들(본노구덩이)은 北郭先生이 도망치다 빠진 野窩가 있는 들이다.

結의 이른 아침은, 北郭先生이 “머리를 조아리며 쳐다본즉 동녘이 밝았는데”(稽首仰而視之 東方明矣)나, “아침에 따비밭을 일구러 나온 농부가 있어”(農夫有朝菑者)云云에서 이른 아침임을 알 수 있고 들은 앞시의 들과 같은 곳이다.

끝으로 공간 위엔 殘雪이, 공간적·시간적 배경은 解氷期요 春耕期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종합적으로 밝힐 문제다. 먼저 殘雪이 있었다는 근거는 屈閣이 범에게 먹이를 원할 때, “제가 진작 짐쳐 보았더니 뿔가진 것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닌 검은 머리한 것이 눈 위에 비틀비틀 성긴 발자국을 내며”(我昔占之 匪角匪羽 黔首之物 雪中 有跡 行跡武) 갔다고 했으며, 또한 “農夫有朝菑者”²⁵⁾에서 아침에 따비밭(菑)을 일구러 나온 것은 이른 봄이다. 따비밭은 菑田·菑畬라 하여 火田을 일컫는 것으로, 礪溪같은 이도 國法으로 금지된 火田에 대해 등감을 표시한 데 비해 燕巖은 火田으로 인한 沙汰의 피해가 걱정할 정도가 아님을 지적했고, 또한 경작지 확장이란 불가피성을 들어 긍정적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비록 산협의 이리서는 농부일지라도 火田할 만한 적지를 살펴 그 토질이 堅實

25) 李家源譯, 「燕巖·文無子小說」, (서울, 박영사, 1976), p.39, 국역 「열하일기」 (1)(서울, 경인문화사, 1976), p.276과 李佑成·林榮澤譯, 「李朝漢文短篇集」(下), (서울, 일조각, 1978), p.325에는 ‘밭갈리 나온 농부’라고 번역하고 있음.

하고 陽地바른 곳을 골라, 明年에 火田을 일구기 위해 今年 가을, 擇地의 나무와 잡초를 베어 말렸다가 초봄(臨耕)에 그 고사한 수초에 불을 질러 농사를 짓는 것이 것이 화전일구는 상례다.”(峽氓雖愚 能自相土之宜 擇其土性之堅實 多受天陽之地 明年將墾 則自今秋 預於所占之區 伐樹刈草 舖覆其土 臨耕燔其枯柴 此火田之恒規也)²⁶⁾

라고, 火田하는 방법까지 익히 알고 있어 단순히 밭갈러 나온 농부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시간·공간 상의 배경조차 아직 겨울 눈이 남은, 解冰期요 春耕期란 근거는 더욱 확실해 진다.

3) 分 析

〈起〉

起는 사건의 發端과 展開를 내포하며 초저녁 산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초저녁은 낮과 밤의 分岐點으로 어둠으로 이르는 문이다. 正常人으로서는 휴식을 준비하는 시점인데 비해 짐승이나 非道德의 人間은 활동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山은 짐승의 安住處인 동시에 極限狀況의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고 이런 時·空에 등장하는 인물은 猛獠·범·佞鬼 들인 짐승 뿐이다.

起의 가)段落²⁷⁾은〈천하의 무적인 범〉(虎睿聖文武 茲孝智仁 雄勇壯猛 天下無敵)이 猛獠 앞에서는 속수무책인데도 사람들은 도리어 범을 두려워 한다는 서술로 發端이다. 自利 이외의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 假想²⁸⁾의 猛獠을, 〈그것들 자체에 제시 목적이 있다기보다 다음에 佞鬼들을 導出하기 위한 데 의의〉²⁹⁾를 둔, 〈抑揚扶弱的 精神의 喚起物〉³⁰⁾로, 〈瘴猛한 胡族들〉³¹⁾ 등으로 보기도 했다. 이같은 견해는 앞으로 살필 과제거니와, 猛獠의 存在意義를 단순한 사건 전개상의 매개체로만 보기에는 그들에게 부여된 성격의 다양성이나 점층되며 나타난 악랄성·교활성 등은 轉의 라)段落과 照應되어 있어 깊이 고구될 일이라 본다. 設定된 空間의 背景에선 가장 높은 위치를 占한 山은 猛獠과 범의 極對極인 관계로 하여 결코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26) 卷16, “田制”, p. 354.

27) 서술 구성에 나타난 가)~마) 단락은 차례로 발단·전개·위기·정점·결말에 해당되며 각 단락의 의미는 주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대등하다.

28)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p. 547에서 魯耳는 범을 먹지 않는다 했는데 則裂而啖之라 지적했고 莊牛·猛獠 등의 출전은 미상이라 밝힌 바 있거니와 「熱河日記」 서문 p. 14.를 참조하면 莊周의 저서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적이 다 참(眞)인 것인 가고 반문하고 있어 연암의 자의로 이 짐승들에게도 성격을 부여했다고 할 만하다

29) 黃浪江, 앞의 논문, p. 209 참조.

30)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p. 548 참조.

31) 李在秀, “燕岩小說考”, 『韓國小說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73), p. 331 참조

절대적 우위에 선 猛獠에 비해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을 늘 안고 사는 범을 사람들은 두려워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는 “優劣·強弱의 순환적 관계”³²⁾이기보다 <원님보다 아전이 무섭다.>는 당시 사회 현실 체제와도 같이 해석되어, 사람들은 단지 猛獠의 위용에 접하지 못했을 뿐으로 이들의 관계는 優劣·強弱에 있어 縱的인 階層秩序의 상징화라 봄직하다. 그러나, 이 질서는 일사불란한 계층 질서가 아니라 심각한 알룩이 내재된 질서다. 최소한 猛獠과 共生을 위해서도 범은 보다 더 神靈해져야 한다. 이것을 작자는, 범은 천하의 무적이다. 맹용은 범을 이긴다. 그러나, 사람은 범만을 두려워 한다고 抑揚反復시켜 다음 사건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 놓기도 했다.

起的 나)段落은 “범이 사람을 먹으면 神靈해 진다”(虎…食人則神)는 서술로 展開다. 여기서 ‘食人’이란 말은 生理的 欲求에서만이 아닌 <取人>의 성격을 띠는 세 偃鬼가 범에게 권한 인간의 성격에서도 드러날 뿐 아니라, 실상 범으로선 보다 內的인 神通力(힘)을 얻어야 할 처지이기도 했다.

偃鬼 중에서도 가장 下類³³⁾에 속하는 屈闇이 추천한 인간은 <뿔달린 것도 날개 가진 것도 아닌 黔首之物>³⁴⁾이었다.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 꿈무늬도 감추지 못하는> 일반 백성이다. 범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언 반구의 대꾸도 없다.

그 다음 彝兀이 권한 것은 醫員과 巫堂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수염을 거스려 가며, <醫는 疑요 巫는 誣로서 生靈을 보호하기는커녕 시험으로 목숨을 끊고, 귀신을 속이고 백성을 유혹해 끊은 목숨이 수만이라 이들 노여움이 金蠶³⁵⁾으로 변해 독이 있어 먹겠느냐!>(醫者疑也 以其所疑 而試諸人 歲所殺 常數萬 巫者誣也 誣神以惑民 歲所殺 常數萬 衆怒入骨 化爲金蠶 毒不可食)고 힐책하며 거절한다.

끝으로 嚳渾이 권한 人間은 碩德之儒로, 범도 처음엔 구미가 당겨 침까지 흘리며 자세히 듣기를 청해, <一陰一陽의 道를 선비가 꿰뚫고 五行 六氣를 조화시킨 선비니 이보다 맛좋은 것은 없을 것이옵니다>(曰一陰一陽之謂道 儒貫之 五行相生 六氣相宜 儒導之 食之美者 無大於此)라고 偃鬼들이 다투어 권한자 <범은 추연히 낮빛을 붉히며 서운한 어조로, 陰陽·五行을 인위적으

32) 黃涇江, 앞의 논문, p.210.

33) 범에게 먹이를 구해주되 남의 손전을 함께 할 정도의 위협을 무릅쓰게 하므로.

3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台北, 華岡出版有限公司, 1978), p.1018에 ‘黔首’는 ‘謂民也’라 했고 ‘黔首百姓也’(文選)라 함.

35) 李家源譯, 「燕岩·文無子小說製選」, p.30. ‘남방 사람이 금잠을 기르되 蜀錦으로써 먹이고 그 똥을 음식에 넣으면 독이 있다’(續博物志) 再引

로 갈라놓았으니 고 고기가 잡히고 순수치 못할 것이며 天地自然의 理法까지 저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儒者가 자기의 공로로 내세우니 그 고기가 強硬해서 滯할 것인즉 먹을 수 없다>(虎極然變色易容 而不悅曰 陰陽者一氣之消息也 而兩之 其肉雜也 五行定位 未始相生 乃今強爲子母 分配醜酸 其味未純也 六氣自行 不待宣導 乃今妄稱財相 私顯己功 其爲食也 無其硬強滯逆 而不順化乎)고 거절했다.

佞鬼들과의 肉味論으로 미루어 보면, 事實을 事實대로 파악할 줄 아는 理性者로서 밑으로 共存同生의 지도력을 펴고 위로는 天地自然의 理法에 순응할 줄 아는 인간을 범은 된했지만 결국 神靈해질 수 없는 좌절감만을 맛보게 되었다. 제알치레도 변변히 못하는 黔首之物(보통인), 感世誣民을 일삼는 人間群, 自然의 理法까지를 저들의 功으로 내세우는 僞學의 碩儒를 먹여서는 猛獠들에게 내적할 神靈한 힘을 얻을 수 없다. 범의 眞意를 깨닫지 못하고 기껏 거절당할 인물만을 천거한 佞鬼들은 愚者³⁶⁾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愚者들이 「虎叱」構造上 기여한 기능은 간과될 수 없다. 먹을 수 없는 것들만 추천하여 먹을 것 없는 곳—北郭先生과 만나는 들—으로 범을 나가게 한 것은 이들 佞鬼들이다. 산중에 앉아서도 生時의 친구들을 불러 범의 먹이를 제공할 만큼은 신통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야말로 실망한 범의 울분을 터뜨리게 한 에이런이었다. 밤이 오기에 휴식을 준비해야 하고 산이기에 안주대야 할 시간과 공간을 범(다음 단계는 이미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으로 하여금 逆으로 활동하게 하고 이동하게 한 「因」을 마련한 셈이다. 또한 起에서 눈여겨 두어야 할 것은, 「東쪽의 醫(疑)」와 「西쪽의 巫(誣)」다 현실의 東西는 다 感世誣民하는 인간들로 가득차 있다는 사실의 지적이다.

〈承〉

한남중, 鄭邑³⁷⁾의 東里子 안방에서 北郭先生과 東里子가 密會하다 五子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어둑기에 활동은 정지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에 <정려를 받은 동리자>(天子嘉其節 諸侯嘉其賢 環其邑數里 而封之曰 東里寡婦之間)와 <만인의 추앙을 받는 북곽선생>(天子嘉其義 諸侯慕其名)과의 밀회다. 禁斷의 時間과 祭域의 空間에서 만난 이들은 獸性을 지닌 인간들로 전락되었다. 北郭先生과 만난 東里子は “수길 잘하는 과부임에도 각성 받아 다섯 아들”(善守寡 然有五子人 各有其姓)을 둔 여인이다. 節婦의 表象

36) 黃浪江, 앞의 논문, p.213, “표면적인 사실밖에 모르는 일상적인 俗物”, p.227에 서는 五子·農夫와 포함해 “한결같이 무사자의 愚衆으로 언젠가 한 번 중간차로써의 기능까지 못했다.”고 지적함.

37) 鄭나라는 풍속이 문란했던 나라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요 萬人の 師表가 될 두 사람의 구단받을 밀회로 미루어 이들의 이름조차 아주 우의적이라 할 만하다. <作中人物의 이름도 매우 示唆의 일 때>³⁸⁾가 많아 작자는 寓意的인 命名으로 作中人物에게 <生命을 賦與하고 個性을 賦與>³⁹⁾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즉, “穠德先生傳”의 우의적 명명과는 반대로 東里子를 앞잡아 ‘등릿것’, 北郭先生을 南面하는 絕對의 世界(天子·君主의 世界)를 에워싼 ‘北녘의 城’으로 우의해 놓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더구나, 起에서 법의 지결을 당한 碩儒와 北郭先生은 同質同類로 僞學·僞善에의 티판은 한층 더 具體化되고 深化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起의 나)段落(偃鬼틀쳐림 다)段落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 五子다. 이들이 北郭先生을 深聞에서 베풀어 다음 행동을 취하게 한 점에서 偃鬼나 五子の 기능은 같지만 그 기능의 성격은 다르다. “선생님의 글읽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고 제 어머니인 東里子가 北郭先生에게 추파를 던지는 不倫의 현장을 목도하고도 北郭先生같은 어진이가 <과부의 문에 들리 없고>(禮不入寡婦之門) 東里子와 맞닿은 北郭先生을 천년묵은 여우의 幻生이라고 믿고 만 五子다. 이는 禮記의 主旨를 맹목적으로 믿었기에 表象의 偶像들이 놀려앉은 세계의 重壓感에 本質把握의 눈을 잃은 五子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本能的 物慾에는 민감하여,

“여우의 갓을 얻는 자는 천금의 장자가 되었고, 여우의 싹을 얻는 자는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는 자는 남에게 잘 보여 누구라도 그를 좋아하게 된다하니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得狐之冠者 家致千金之富 得狐之履者 能匿影於白日 得狐之尾者 善媚而人悅之 何不殺是狐而分之)

라고 모의하여 밀회의 현장을 덮쳤다. 五子가 욕심낸 富·遁甲術·이침잘하기(善媚)는 北郭先生이 지닌 屬性이란 데서 독자는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다. 北郭先生은 五子の 습격에 기겁을 하여, “한 다리는 비틀어 목덜미에 얹고 귀신춤·귀신웃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以股加頸 鬼舞鬼笑 出門而跑) 놓치고 만 五子は 똑똑한 바보인 알라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마구 달려가다 “분노가 가득찬 구렁이에 빠진”(陷野窞 穢滿其中) 北郭先生은 含蓄의 諷刺(알레고리적 풍자)⁴⁰⁾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갓끈을 썩은 새끼틀쳐림

38) C. 카아터 윌웰, 이재호·이명섭역, 『文學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1978), p. 215 참조.

39) 르네·워렌, 오스틴·워렌, 김병철역, 『文學의 이론』, (서울, 진문사, 1959), p. 299 참조.

40) C. 카아터 윌웰, 이재호·이명섭역, 앞의 책, pp. 94~98에서 다른 것을 나쁘다고

때고 입안의 밥안을 벌떼처럼 내뿜게) 하려던 燕岩의 「虎叱」 제작의도는 일차적으로 충족되었다.

北郭先生이 빠진 野窻조차도 “儒는 구리다”(儒句臭)란 야유를 받을 근거가 되면서 또한 生産力의 貯庫⁴¹⁾로서 <너도 분노처럼 거름이 되라>는 작자의 寓意를 엿보게 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착오로 北郭先生을 궁지로 몰아넣은 五子를 <誤子>로 戲字할 수도 있다.

이 承은 범에게 있어 危機가 조성되었으며 예까지 살피는 동안 세상은 온통 矛盾과 不條理에 찬 세상이 되어, 즉 東에는 醫者로 疑惑을 일삼는 무리 西에는 巫者로 誣民을 일삼는 무리, 복讎엔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한 北郭先生類가 버티고 있어 범과 같은 인물이 설 땅은 산이건 마을이건 없는 셈이 되고 말았다.

<轉>

背景뿐 아니라 사건도 一轉되어 범과 北郭先生의 만남은 본 소설의 絕頂이 된다.

“옛이란 것도 이제란 것도 역시 大瞬·大息에 지나지 않는다.”(則一古一今亦可謂大瞬大息矣)⁴²⁾고 쓴 作者는 <世運이 긴 밤처럼 어두워짐>(世運入於長夜)에 따라 빛어졌던 非理와 混亂이 一瞬·一息에 一轉됨을 보이며 한다. 時間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어둠이 밝음, 감춤이 드러남으로 일전되었고 空間도 일전되어 방 안에서 들판으로 이동되었다. 더구나 새벽녘은 어둠이 밝음으로, 단침에서 열림으로 귀결될 운명의 辻점이지만 北郭先生類에게는 단침으로 귀결되어야 할 辻점이기도 하다. 轉에서 主題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한 배경은 野窻로 難攻不落의 絕對聖域⁴³⁾에 군림했던 北郭先生을 穢地의 最弱者로 바꿔 놓았다. <抑揚反復은 격전의 擄殺>이라 했던 燕岩의 創作方法은 어둠과 밝음, 단침과 열림, 방안과 들판이란 時間的·空間的 背景의 抑揚, 北郭先生과 東里子와의 和合과 逃走, 습격의 모면과 범과의 만남 사이에서 일어난 점층된 긴장과 이완의 抑揚反復은 北郭先生으로 하여금 목숨 하나를 애걸할 정도로 전락시켜 놓았다.

다루는 풍자 중 明示의 풍자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41) 卷8, “穢德先生傳”, p. 116에, 서울 근교인 往十里·石郊·延禧宮·青坡·梨泰院 등의 체소는 임항수의 인분 덕택에 살찌고 있음을 지적했고 임항수야말로 모든 덕을 더러운 똥 속에다 묻고 세상의 잡된 陋士의 노릇을 하는 자라고 그 덕을 기렸다. 野窻는 다수확을 염원하는 농민의 기대적이기도 하다.

42) 卷12, “郭洪隨筆”, p. 171.

43) 北郭先生이 누리고 있는 陋者의 땅이나 東里子が 누리고 있는 旌閭地는 聖域이라 할 만하다.

간신히 분노구덩이(野窖)에서 기어 올라온 北郭先生을 향해 “어이쿠, 선비란 구리구나!”로 모멸과 야유를 퍼붓기 시작한다. 이를 당해 北郭先生은 녹음 네이프처럼 “하토의 진한 진하 감히 아랫 자리에 서옵니다.”(下上賤臣敢在下風)를 되내며 <猛獠를 만난 범이 눈을 감은 채 감히 눈을 뜨지 못하듯> 떨기만 할 뿐이다. 이에 대해 범은, <과연 儒란 諛>라고 인침을 놓은 뒤 叙述構成에 概略해 고인 6 가지 主旨를 장장 900 餘言으로 한 지 한 치 급소만 찢러갈 때도 北郭先生은 감히 고개 한 번 못 든다.

아무것도 두려워 할 줄 모르던 北郭先生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 범의 분노 앞에 부릐를 꿇음으로 독자는 통쾌감을 느끼기도 그 그칠 줄 모르는 질책의 경연한 논리성에 문득 작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과연 격렬한 범의 분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격렬한 범의 분노가 神靈해 지려던 기대에의 挫折感에서 온 것임을 생각할 때, 猛獠이 범을 잡아먹는다는 서술인 起의 가)段落과 虎叱로 일관되는 이 轉의 라)段落은 서로 照應됨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즉, 두 段落의 내용을 전체적 主旨面에서 살펴보면, 猛獠이나 人間(北郭先生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다)들은 自稱로 因한 온갖 만행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다는 점에서 크게 同質佐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저 十種의 異獸(猛獠)들이 잔인하고 교활할 정도로 범을 잡아먹는 모습의 구체화가 인간들이 魚類·禽獸를 잡을 때 쓰는 도구로 “새그물·노루그물·작은 물고기그물·큰 물고기그물·수레그물·삼태그물”(而爲罾也 罾也 罾也 罾也 學也 罾也) 등, 殺生의 무기로 “큰나늘·원창·날없는 창·도끼·세모창·한길 여덟자 창·표족창·작은 칼·긴 창”(有鉞者 戮者 沒者 斫者 鉞者 鉞者 斫者 斫者) 등의 사용에서 드러났다 하겠다. 특히 가)段落의 獵이 <범과 표범에게 먹히었다가 그 肝을 뜯어 먹는>의 교활성과 잔인성은, “베뚜기에서 그 밤을 베었고, 누에한테서 옷을 베었으며, 벌을 제어하여 그 꿀을 굶어먹고, 심한 자는 개비알을 짓밟아서 그 조상께 제사하니 그 잔인하고도 박덕함이 너희들보다 심할 자 있겠느냐”(乃復獲食於蝗 奪衣於蠶 禦蜂而剗甘 甚者 醜蟻之子 以蓋其祖考 其殘忍薄行孰甚於汝乎)고 질책받은 인간의 잔인·박행과 아주 유사하다. 이같은 두 段落 사이의 照應은 猛獠과 北郭先生의 世界는 同質同類의 것이란 암시가 된다. <조응은 봉수대요>(照應者 烽墩也)라고 본 연암의 창작 방법으로 보면 언제라도 이 두 세계(맹용이 지배하는 세계와 북극선생류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격전을 알리는 봉화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虎叱上에 나타난 인간 세계와 범의 세계와의 對比로 抑揚反復된 수법은, <譬喩는 유격대>g. <여양 반복은 격전의 시산>이라 한 燕巖의 창작방

범이 『비추면 강대한 적일수록 불의의 습격을 가해야 하고 격전엔 시살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가)段落(맹용의 세계)과 라)段落(북곽선생류의 세계)은 同質同類의 세계임을 照應시켜 절대적 힘을 지닌 猛獠의 세계에 직접적 도전을 피하는 무모함보다 그 세계의 강력한 기반이 되는 北郭先生類의 세계破壞를 통한 범의 代償行爲의 場이 라)段落이며 『虎叱』構造上の 一大轉換이 바로 이 라)段落이라 할 수 있다.

〈結〉

『虎叱』은 낮이 밤으로 바뀌는 晝(조저녁)에서 시작되어 밤이 낮으로 바뀌는 晝(이른 아침)에서 끝났다. 이 12시간 속에 <옛(古)과 이제(今)>가 공존하는 셈이 되었다. 밤중을 회전축으로 하면 背景과 人物의 類型은 완전히 正反으로 나타난다. 달침에서 열림, 어둠에서 밝음, 휴식에서 활동 등으로 바뀌었고 산(高)에서 들(低)로, 狹(山)에서 廣(野)으로 바뀌었다. 人物 또한 짐승(상징적 존재)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추상적 세계가 구체적 현실 세계로 전환되었다.

900여인의 虎叱로 하여 냇이 빠진 채 “下土賤臣 敢在下風”을 외며 頓首頓首 애걸하다 “전혀 범의 본부가 없자 황송코 두려웠으나 손을 맞잡고 머물 조아리며 쳐다본즉 동녘은 이미 밝았는데 범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만 뒤였다.”(久無所命 誠惶誠恐 拜手稽首 仰而視之 東方矣矣 兇則已去) 五子로부터 축출을 당한 뒤로 복습 하나도 부지할 능력마지 잃었던 北郭先生은 그 본래의 위치로 돌아갈 행운을 맞은 것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체면에 손상될 일은 단지 滅壽한 마음 뿐이다. 북곽선생에게 어둠이란 참으로 고타운 존재였다.

“선생님은 어떤 일로 이른 아침 들판에서 절을 하고 계십니까!”(先生何早 敬於野) 北郭先生은 꿈⁴⁴⁾ 속에서 깨어나듯 미처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한 때에 農夫의 출현과 그 의아해 하는 질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 “내 들으니, ‘비록 하늘이 높다하되 머리 어이 안 숙이며 땅이 비록 두텁단들 조심해 딛지 않으랴’ 하였데그려”(吾聞之 謂天蓋高 不敢不跼 謂地蓋厚 不敢不躡)라며, 僞善의 문턱을 성큼 넘어들고 만다. 이로써, 非理가 용납되지 못할 白日에, 生産의 터전인 신성한 들판에 섰으면서도 北郭先生은 農夫의 의혹을 高尚한 經文⁴⁵⁾으로 간단히 풀어줌으로써 난코스인 긴 장애물 경기의 승리가 되었다. <갓끈을 썩은 새끼줄처럼 메고 입안의 밤알을 벌떼처럼 날

44) 蘇在英, “虎叱再論”, 『崇田語文學』(제 2집), (서울, 승전대, 1972), p. 124에서 범을 北部의 꿈속에서 만난 신령스런 존재라 보고 있음.

45) 본문의 인용문은 ‘孟子’의 것임.

리겠다>고 버렸던 「虎叱」 제작 의도(목적)는 라)段落에서 끝나고 이 마)段落에 오면 웃음은 커녕 어떤 말조차도 燕岩은 거두워 버렸다. <저 中原의 혼란이 맑아질 날을 기다릴 뿐>이라고 기대한 燕岩 자신의 꿈도 무산될 정도다. 이는 「許生傳」의 결말보다도 더 비극적이다.⁴⁶⁾ 北郭先生과 범의 만남은 “실패한 만남”⁴⁷⁾이었고 결코 再會를 불허하는, 北郭先生의 僞善을 더욱 철저히 다져준 그런 만남같이 보인다. 그러면, <勝訴에는 證據物을 제시해야 하듯 글을 써야 한다>던 燕岩의 創作持論은 「虎叱」에선 中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누가’·‘무엇을’했으나 보았을 때의 主題意識과 ‘언제·어디서’를 연관시켜 생각할 때의 主題意識은 전혀 달라진다. 즉, 北郭先生의 파멸은 殘雪·野窰의 背景設定으로 단지 시간 문제로만 남게 된 것이다. 따비밭을 일구려 나온 農夫는 가난하고 선량하여 平素 北郭先生類의 위압에 순종을 미덕으로 알아 왔겠지만,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奇怪한 모습—오물을 뒤집어 쓴 채 허공에다 절을 하는—을 農夫는 놓치지 않았을 것이며 自己塗色을 위해선 法典처럼 내세우던 經文의 인용—<땅이 두둑단들 조심해 던지 않으랴>—은 자가당착적인 것임도 농부는 알게 된다. 게다가 귀신처럼 도망치며 <눈길 위에 비틀비틀 성긴 걸음> 자국을 낸 東里子の 집으로 이어진 길을 北郭先生은 이제 지울 도리가 없다. 燕岩은 「虎叱」構造上에 勝訴에의 결정적 證據物로 殘雪과 野窰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證人으로 農夫와 五子를 등장시켜 놓은 것이다. 北郭先生의 僞裝(善)術도 限界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는 「虎叱」後識에서 淸이 明나라 文物에 대한 劣等意識을, 事理를 따지지 않고 牽強附會式的 思考와 힘으로 은폐시키려 한 枝葉의 처사(服色問題)를 비판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오욕의 구렁에 몰아넣고서 잠깐 치욕을 참고 우리를 따르면 강하게 될 것이라고 호령하는 데, 나는 그렇게 해서 정말 강하게 될 일인지 모르겠다. ……가령, 어리석은 백성일지라도 저들이 강제로 씌어준 병거지(輜)를 벗어서 땅에 팽개친다면, 淸皇帝는 벌써 가만히 앉아서 천하를 잃는 격이 될지니, 앞날 이를 믿고서 강하다고 뽐내 밀던 것이 도리어 망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 (囿天下於辱辱之地 而號之曰 姑忍汝羞恥 而從我爲強 吾未知其強也… 假令愚民一脫其輜而抵之地 淸皇帝已失其天下矣 向之所以自恃而爲強者 乃反救亡之不暇也) ……

46) 「許生傳」의 허생과 이완의 만남은 비극적이지만 허생의 三策建議를 면전에선 未거 절했지만 이완은 다시 허생을 찾아야만 했다.

47) 黃滄江, 앞의 논문, p. 232에서 북곽과[범]의 만남은 화해나 통일과는 먼[대극적]인 서로의 位相을 확인시켜 준데 그치어 만남이라기보다는 서로 平行線上을 갔을 뿐이란 데서 일컬어진 말.

고, 반문한 사실을 주목케 한다. 특히 燕巖은 平素에도 背景이 主題에 미치는 영향력에 민감하여 離別에도 자리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절코 燕武나 李陵만이 천하의 有情한 사람이 아니건만 특히 그 河梁이란 곳이 이별하는 장면에 알맞았던 것이니, 그 이별이 그 땅을 얻었으니 괴로우이 가장 심한 것이다.”(非蘇李劉爲天下有情人也 特河梁獨得其地也 別得其地 故爲情最苦)⁴⁸⁾

勝詠에의 讀牒提示와 같은 殘雪·野窖 등의 背景設定은 물론 背景의 寓意的 含蓄美를 燕巖은 의도적으로 삼라려 했다고 본다. <저들이 강제로 씌어준 병거지>는 바로, 愚昧한 民衆 위에 군림한 北郭先生類와 같은 癌의 存在인 爲政者·僞儒들이 씌어준 정신적 압박의 농약줄인 誤用된 經典⁴⁹⁾과도 같다. 그러나, 이 愚民들일지라도 實相을 파악할 계기가 주어진다면 <병거지>를 뺄게 치듯 농약줄을 끊고 일어설 수 있으며—조선조 후기의 민란은 다 이런 상황에서의 민중봉기였다—<가만히 앉아서 천하를 잃을 淸皇帝>는 北郭先生類가 응위하고 있는 絕對의 權力者, 바로 猛獠이라 생각할 수 있다. (뒤에 상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말에 農夫를 등장시킨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실수없는 性命論이나 高踏의 談論만을 농사로 알면서 <히영과 걸치레만 일삼고 실제의 학문을 외면한 선비가 무지한 농부의 지도자가 되어 게으름만 된다면 이는 마치 술취한 사람으로 하여금 맹인을 안내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嗚呼 今以浮華不學之士 率其情靈 無知之眈 即何異於使醉人相鬪哉)⁵⁰⁾고 지탄받을 선비와는 대조가 되는 농부가 등장되었다. 비록 지금까지는 맹인처럼 술취한 것 같은 선비(지배층=복관선생류)의 권위에 눌려 순종해 왔지만, 그들이 모순과 허위의 실제임을 깨달았을 때 농부와 五子와의 연결은 <民心이 天心>으로 비등할 구심점이 되어 천년 묵은 여우의 幻生만큼은 교활한 北郭先生일지라도 劇의 아이러니(dramatic irony)⁵¹⁾의 주인공 공으로 전락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므로써 배경을 고려치 않았을 때의 주제는 비극적이던 것이 희극적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었으며 北郭先生이야말로 <갓끈을 찢은 세끼출처를 떼고 입안의 밥알을 벌레처럼 날리게>할

48) 卷12, “漠北行程錄序”, p.201.

49) 五子들이 北部先生과 東里子の 유사 현장을 부각하고도 牛과 羊생류가 가르쳐 준 禮記의 말을 문이 곧바로 빈었던 까닭이며, 虎叱의 마지막 부분은 牛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다.

50) 卷16, “諸家總論”, p.345 참조

51) 이상섭, 「문학 비평 용어 사전」, (서울, 민음社, 1976), p.188이나 Cowell의 「문학 개론」, p.75.에 작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이러니를 낳고 있도록 된 것을 일컫고 있음.

뚝뚝한 바보의 전형으로 남게 되기도 했다.

끝으로 作品內的 現實과 設定된 背景과 연상시켜 猛獠과 범의 성격을 살펴 본다. 空間的 背景인 山·마을·물은 표면상으로 上·中·下의 高低를 나타내고 여기에 등장된 人物의 優劣·強弱의 정도도 強·中強·弱으로 일치를 보인다. 또한 작품 내적 현실의 北은 현실을 의면한 채 現體制 固守에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 체면유지와 권위만을 내세우는 北郭先生類가 城처럼 버티고 앉았고, 東에는 醫(疑), 西인 巫(誣)로 惑世誣民을 일삼는 무리가 횡행하는 亂世로 오직 이 혼탁과 거리가 먼 곳이 南이다. 이 南은 신성한 들판이며 農民이 주인으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하다.⁵²⁾ 이 터전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北郭先生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 밭이며 밭인의 開眼처럼 새 삶의 전기를 마련해 준 것도 밭이다. 그러나 이 밭은 현실이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睿智와 그 치유책을 알고 있는 先覺者的 經綸을 지녔으면서도 猛獠과 北郭先生類의 對立에서—그들의 세계에서—미처 자기 자리를 구축하지 못한 孤立者다.⁵³⁾ 이 고립은 호통(虎叱) 한 번으로도 “下士賤臣 敢在下風”을 터내고 마는 北郭先生類와의 對立에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北郭先生類와는 同質同類이면서도 絕對의 힘을 소유한 猛獠의 억압·억제로 인해 생긴 고립이다. 이로 볼 때 이 猛獠은 絕對 權力者(爲政의 最高者·君主) 自體며, 그 屬性의 象徵化라 할 수 있다.

三. 結 論—主題把握을 槪해서—

지금까지 살펴 온 바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고, 주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첫째, 「虎叱」의 제작 목적은 燕巖의 有目的的 創作態度에 입각하여 그가 체험한 혼탁한 세계의 구조 변혁에 있었다. 특히, 자자의 <웃음의資>를 제 공하려던 제작 의도는 的 中했으며 그 웃음은 단순한 諧謔에서 얻어질 웃음

5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같은 책 九卷, p.1207에 “梁燾傳曰水北爲陽 山南爲陽”이라 했거니와 陽地는 바로 곡식을 심을 곳이며 들이 생기면 그 주인공이 농부일 수 있다.

53) 이는 연암같은 선학자들이 겪었던 공통된 당시 위기로, 연암 자신만 해도 41세 때에는 당시의 제도가 洪國榮의 격매간정으로 金川의 燕巖峽으로 遁居한 적도 있으며 57세 때에는 正祖가 「熱河日記」를 읽고 난 뒤 문풍 타락의 속죄로 醇正文을 지어라는 명을 내려 63세에 「課農小抄」 및 「限民名田議」 등을 지어 바친 바도 있으며, 그를 따르는 박제가·유득공·이덕무 같은 영재들이 있었던 바 아니나, 부학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위문 임금으로부터 멀었고 가까운 사람들에 가까져 음양으로 억제를 당한 바 있다. 밭은 마치 연암과 같은 큰 경륜의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펴지 못한 낙척불우의 인물형이라 할 만하다.

이 아니라, 어떤 眞實의 再發見에서 오는 놀랍고도 통쾌한 웃음이었다.

물론, 燕岩의 “創作行爲는 心理的 自慰行爲”⁵⁴⁾였으며 “독자의 자유와 교섭하기 위하여 작품을 썼다.”⁵⁵⁾ 그의 창작 기본 태도는 法古보다 翻新에 두었고 확고한 창작 이론과 방법을 본 작품에 두루 응용하였다. 특히 그는 “含蓄을 귀히 여김은 두 가지(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貴含蓄者 不禽二毛也)이라 하여, 한 字, 한 句節에 이르기까지 比喻·隱喻·象徵·寓意를 구사하여 外傳과 寓言이 지닌 創作妙味를 심분 발휘했다. 時空을 초월하여 진실의 〈호통〉으로 남을 題目「虎叱」을 비롯하여, ‘醫’는 ‘疑’다, ‘巫’는 ‘誣’다. 北郭·東里子 등의 人物에 부여한 命名은 戲字로 인한 寓意나 象徵이 되어 그 性格의 함축미를 잘 살린 예다. 더구나,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逆說로 背景의 〈殘雪·野窖〉, 人物의 〈佞鬼·五子·農夫〉 등의 설정은 作品 構造上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하여 주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했다.

초기의 가)段落에 나타난 猛獠들의 性格과 轉의 라)段落에 나타난 虎叱 內容이 지닌 性格과의 照應, 라)段落 자체의 對比로 인한 抑揚反復, 나)段落에 등장한 佞鬼의 기능과 承의 다)段落에 등장된 五子の 기능 등은 소설에 리얼리티를 부여했으며 사건 전개에 有機性을 부여하였다. 〈抑揚反復은 격전의 擲殺〉이라 본 燕岩의 창작 방법은 人物 相互間의 對立樣相에 여실히 반영되었다. 즉, 범쪽에서 보면, 가)段落에서 猛獠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나)段落에선 期待와 挫折로, 다시 라)段落에선 北郭先生을 억압하므로 抑·揚·抑·揚으로 나타나 諧謔的 諷刺로 통쾌한 웃음을 낳게 했다. 또한 北郭先生 쪽에서 보면, 다)段落에서 東里子와의 和合으로 인한 自己高揚, 五子로 인한 수난, 교활한 꾀로 인한 수난에의 對면, 라)段落에서의 최악의 수난, 다시 마)段落에서 권위를 무기로 農夫를 속임으로, 揚·抑·揚·抑·揚의 대립 양상을 보여 독자의 분노와 경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한 二重의 美的感覺을 살려 놓았다. 이같은 對立樣相의 二重構造는 「虎叱」 結末을 未解決의 解結로 처리되게 하여 본 작품을 보다 近代的小說의 성격에 띠게 했을 뿐 아니라, 背景과 밀착된 이 未解決의 解決은 劇의 아이러니를 수반하여 독자에게 강렬한 餘韻을 남겼고 主題를 決定지었다. 이 餘韻이야말로 “餘音을 두는 것은 軍대를 거느리고 개선하는 일”이라고 본 燕岩 創作方法의 소치에서 엿다 하겠다.

세째, 背景의 寓意性과 「虎叱」 構造上에서의 기능을 살펴 보자. 계절상으

54) 이상삼, 「문학용어사전」, (서울, 민음사, 1976), p. 181. 프로이드의 말임

55) 사르트르, 김봉구역,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신태양사, 1959), p. 92.

문「殘雪」이 있는 解氷期로 春耕期로, 겨울의 간재는 뿌리깊은 因習의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면서도 新生을 향한 긍정과 희망적 분위기는 여기서 전개될 사건이나 人物의 性格을 규정지를 뿐 아니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時間的 背景은 초지녀에서 이른 아침까지의 12시간 동안으로 一回性的 性格을 띠므로 再反覆이 不許된 時間으로 사건이나 人物의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

또한 空間的 背景인 山·마을·들은 社會體制的 階層秩序(절대권력자·복파선생류와 같은 무리·백성들)를 연상케 했으며,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이동은 실질적 힘의 소재지가 어디인가를 암시하는 배경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野蠻의 設定은 美와 醜, 生産的인 것과 非生産的인 것에의 價値觀念의 顛倒를 寓意한 背景으로 볼 수 있으며 主題表出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요약하면, 「虎叱」構造上 설정된 時間的·空間的 背景은 事件이나 人物의 역할에 못잖은 역할을 하여, 그들의 성격부여에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 전개나 人物의 대립 사이에 나타난 연쇄적 우연성을 유기적 필연성으로 극복시키기도 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이 지닌 내포적 의미와 외연적 의미는 우의와 함축으로 두 배경의 경과와 이동에서 일치됨을 보이며, 사건 전개나 人物의 대립관계만으로는 悲劇的인 수밖에 없는 「虎叱」의 主題를 喜劇的인 主題로 결정짓기도 했다.

비껴, 등장된 人物 중 猛獠은 「虎叱」제작 당시의 社會體制上 가장 높은 위치,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자로, 小我的 自利圖謀에 머물러 共存共生的 基本秩序를 망각한 채 사리판단에 눈이 어두워 대상에의 親疎마저도 식별할 줄 모르는 絶對的 權力者(위정의 최고자·군주) 자체의 상징화며 그 성격 자치의 상징화라 할 수 있다.

범(虎)은, 현실이 안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睿智者로 보다 나은 世界(어느 사회·국가에서 인류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의 建設參與를 꾀한 先覺者의인 성격을 띤 인물임에도 당시 사회 체제에선 소의당한 고립자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자기 신념을 포기할 모든 理性者요 忍耐者이기도 했다.

北郭先生은, 絶對的 權力者의 이성을 현혹케 하고 亂世의 中樞的(현실적 지배계급의 정신적 거주) 人物로, 小我에 머물러 共存共生的 天運을 逆行하면서까지 利我的 自己位置 固守에 온갖 만행을 자행한 非生産的·非人道的인 儒者의 표본이다.

東里子是, 정치적 문란과 맞먹는 도덕적(윤리적) 문란상을 실증시켜 준 인물로, 변형된 北郭先生의 또한 모습(윤리적 타락상)을 투영시켜 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張鬼들은, 범의 세계에 귀속된 인물들로, 주동적 인물(범)의 本心을 逆으로 부추켜 北郭先生類의 가면을 벗기게 한 에이런적 존재다.

五子는, 도덕적 문란상의 구체적 실증물로서 北郭先生과 東里子が 누리는 聖域에 同居하면서도 自利策으로 因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알라존이다. 그러나, 뒤에 농부와 연결될 때 자기들이 소속된 세계의 허위성에 가장 격렬한 반기를 들 존재들이기도 하다.

農夫는, 지금까지 北郭先生類의 권위와 위압에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지냈지만 北郭先生의 眞面을 최초로 발견한 證言者로서, 生産的인 들판의 주역자로서 北郭先生을 告發·聲討할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다섯째, 主題는, 小我에 執着된 支配層(군주를 포함한 집권층)의 편협적 자기 응호로 하여 빚어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모순적 병폐(특히 정치덕·도덕적·학문적)의 果敢한 剔決과 近代化의 促進을 熱唱한 理性的이고 先覺者의인 존재의 聲討로, 확대하면 人間性 擁護의 先唱的 聲明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주제는 희극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파괴되어야 할 대상인 北郭先生 앞에 農夫를 등장시킨 점은 「虎叱」 제작 당시 사회 구조로 보아, 燕岩의 利用厚生思想이나 重農思想을 엮고 계 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兩班階級(지배층의 양반 및 이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던 위정의 최고자까지)의 몰락과 平民階級(여기선 농민으로 대표됨)의 대두를 은밀히 시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燕岩의 創作理念과 「虎叱」 製作目的을 염두에 두고 작품상 설정된 배경의 우의성과 작중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주제를 파악해 보았다. 부분에 치우쳐 전체를 소홀히 한 경우나 원전 해독에 오류를 범했을런지도 모르나, 「虎叱」 연구에서 그 背景을 중점적으로 고구해 봄은 주제 파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해 둔다.

참 고 문 헌

- 朴趾源, 「燕岩集」, (서울, 景仁文化社, 1974)
- 丘仁煥·丘昌煥, 「文學概論」, (서울, 三英社, 1976)
- 金超東, 「李朝時代小說論」, (서울, 宣明文化社, 1975)
- 金永植, “燕岩朴趾源의 文學觀과 文學理論”, 『明知語文學會』(제 8집), (서울, 明知大, 1976)
- 金台俊, 「朝鮮小說史」, (서울, 學藝社, 1939)
- 朴宗采, “나의 아버지 朴燕岩”(上), 「文學思想」(통권 20), (서울, 문학사상사, 1974)
- 蘇在英, “虎叱再論”, 『崇田語文學會』(제 2집), (서울, 崇田大, 1972)
- 李家源, “虎叱研究”, 『延世論叢』(제 2집), (서울, 연세대, 1963)
- , 「燕岩小說研究」, (서울, 을유문화사, 1976)
- 이상길, 「문학미평 용어사전」, (서울, 민음사, 1976)
- 李佑成, “虎叱의 作者와 主題”, 『創作과 批評』(제 3권 제 3호), (서울, 一潮閣, 1968)
- 李佑成·林煥澤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下), (서울, 一潮閣, 1978)
- 李源周, “虎叱의 諷刺對象”, 『常山李在秀博士還曆記念論文集』, (대구, 螢雪出版社, 1968)
-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大邱, 螢雪出版社, 1973)
- 趙東一, 「韓國文學思想史試論」, (서울, 지식산업사, 1978)
- , “朴趾源의 文學思想과 小說論”,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서울, 일조각, 1978)
- 黃泓江, “虎叱研究”,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서울, 일조각, 1978)
- 르네·웬델·오스틴·위렌. 金秉喆譯, 『文學의 理論』, (서울, 신구문화사, 1959)
- 朴趾源·李鉉·李家源譯, 『燕岩·文無子小說精選』, (서울, 박영사, 1976)
- 사프르르·김봉구역, 「文學이란 무엇인가」, (서울, 신대양사, 1959)
- C. 카이티 란델. 이세호·이병섭역, 『文學概論』, (서울, 을유문화사, 1978)
- 劉勰·崔信浩역, 『文心雕龍』, (서울, 玄岩社, 1975)
- 李佑成·林煥澤譯, 국역 『熱河日記』(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6)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方大辭典』(+), (台北, 華岡出版有限公司, 1978)